공자님과 예수님의 차이

(마13:47-58)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공자님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공자님과 예수님의 차이를 학문적으로 규정하자면 어마어마한 연구와 탁월한 학문적 역량에 의해 만들어진 논문이 최소한 한 편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단편적이지만 또한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알아도 얼마든지 공자님과 예수님의 차이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논어 위정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다들 아시지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도 말합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그 문장을 완전히 생각해 보자면 논어 위정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온고이지신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무슨 말입니까?

온고(溫故), 옛것을 익힘으로

지신(知新), 새로운 것을 알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온고이지신가이위사의(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능히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기원전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방법론에 대해서 쓰는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괄목할 만한 모든 연구의 역사를 훑어보지 않으면 제 논문에서 새로운 것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온고(溫故), 그 주제에 대한 옛것을 익힘으로써만 그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오늘 주신 말씀 중 특별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아니라 '온신이지고(溫新而知故)'

다시 말해 주님은, 옛것을 익히는 것 대신에 '새것을 익힘으로써 옛것을 바르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본문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의 본 뜻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은 서기관마다'

공자님께서 온고이지신이면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익힌 자라면 능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배운 자라야 옛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옛것이라는 것은 아마 구약시대의 내용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산상수훈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새로운 가르침이요, 참으로 볼 수 없었던 권세의 드러남이라고 놀랍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국 티내기'였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천국 티를 내는 것이 산상수훈이었고, 산상수훈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님께서 반복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옛 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시는 그 말씀이 새것인데, 그 새것의 내용이 바로 '천국의 티내기'였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가졌다는 티를 내는 것이 산상수훈이요, 율법과는 구별이 되는 차별화 되는 새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기관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신 것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논어 위정편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처럼, 서기관이라는 말을 쓴 것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가져온 새것을 익힌 자들이 옛것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칠 것이다'
공자님은 '옛것을 익힌 자들이 새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논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신앙의 전도(顚倒)입니다.
전도는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의미로 온고이지신의 태도가 되면 한 마디로 지독한 불신앙이 돼 버린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갈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형식적인 말입니다.
형식적인 말이라는 것은 꼭 나쁜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할 때 고(古)와 신(新),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새것은 백년 뒤에는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옛것과 새것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형식적인 말이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것과 옛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내용적인 말입니다.
한 마디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새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천국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2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은 내용에 관한 말인 한,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옛것이 돼버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용적으로 새것을 규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게 새것이에요.
그것만이 새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것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게 새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가 행동으로 티를 내게 됩니다.
그게 율법과는 다른 산상수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새것은 2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논리 속에서 옛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논리로 얘기해서 그 아기는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사도바울이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다.
100년 뒤에 태어날 아기도 옛사람입니다.
이 세상 끝, 그 미래에 태어날 아기도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하시는 새것과 옛것, 공자님이 말하시는 새것과 옛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자님이 말하시는 새것과 옛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바깥에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속한 것들은 옛것이 되고, 지금과 미래에 속한 것들이 새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것은 이 지상 위에서 시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새로운 차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새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차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외에 천국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것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자, 시간으로 보면 과거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2천 년 뒤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2천 년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시고, 예수님 시절도 보시고, 우리 시절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이 세상에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새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새것이 되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백년 뒤의 일도 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차원이 새 차원과 옛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자님은 이 세상의 차원 안에서 시간을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나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차원 전체가 옛것이 되어버리고 하늘나라가 갖다 붙여지면서 하늘나라가 새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희미하게 솔로몬에 의해 쓰여 진 전도서에 예표 되어 지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자, 이후에 일이 일어날 겁니다마는 해 아래 있는 한 그것은 새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 타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고속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나 부산을 가야되는 것은 이전이나 이후에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 ‘해 *위에* 새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 위에,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와 달, 이 세상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계,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이 해 아래 세상에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것과 옛것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에서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도 첨단이 아니에요,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인 한, 육체가 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 속한 한,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 한, 그것이 백년 뒤에 일어날 일일지라도 천 년 전에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로 구닥다리 일이라는 겁니다.

2천 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는 그 시절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말씀하신 그 새것은 여전히 지금도 새것인 이유는 차원의 새것을 갖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옛것이 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인 한, 육체로 접하는 것인 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인 한에 있어서 다 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과 새사람도 아무리 금방 태어난 아기라도 구닥다리 사람입니다.
여든, 아흔,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이라도 천국을 마음에 가지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새사람입니다.
아기도 구닥다리 사람이고 구십이 되셔도 완전 최첨단으로 새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옛것과 새것의 차원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무척 사업이 잘돼서 번창하고 있다,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형편은 옛것입니까, 새것입니까?
옛것이에요.
이 옛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옛것을 잘 익힘으로써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옛것은 천국이라는 새것을 익힐 때에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을 먼저 익힌 자가 천국이라는 새것을 먼저 마음으로 익히고 깨달아 알고 느끼는 자라야 이 세상이라는 옛것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접하게 되는 이 세상 모든 사람관계, 모든 상황과 형편, 모든 사건, 다 옛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붙여짐과 동시에 이 땅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옛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뭡니까?
육체'나',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육체'나'가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육체와의 결속을 끊고 하늘나라와의 결속을 이룬 자, 이게 성령'나'입니다, 이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물비유가 나옵니다.
배 두 대가 양쪽으로 그물 끝을 붙잡고 무거운 추를 단 직사각형의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훑어냅니다.
22종에 달하는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택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물은 교회를 뜻해요, 교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골라낸다는 얘깁니다.
바다가 세상이라면 이 그물이 교회라서, 교회가 사람을 모읍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골라낸다는 얘깁니까?

옛것과 새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비유를 들자면 공자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온고이지신 하는 자들을 골라서 밖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경계 바깥으로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온고이지신 하는 자들을.
온고이지신이 주님의 논리에 의하면 어떤 뜻입니까?
시간에서의 과거를 알고 시간상의 지금과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온신이지고가 바른 신앙이라면 새롭게 붙여진 천국을 알고 옛사람의 세상, 이 지구 위의 삶, 이것을 이해하는 게 바른 것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고이지신을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익혀 압니다.
알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지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몸으로 마음으로 익힙니다, 온고(溫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있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을 먼저 마음이 익히고, '먼저 익힌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세상의 형편, 이게 옛사람이 속한 형편 아닙니까?
옛사람의 세계, 옛것을 마음이 먼저 익히고 새것을 소개하신 예수님께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느끼고 깨닫고 아는 대로 수종 들어주셔야 될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있는 나쁜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마음이 먼저 익히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마음이 먼저 느끼고 깨닫고 판단한 뒤에 '이건 좋다 나쁘다, 꼭 돼야 된다, 극복돼야 된다'고 판단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오해요, '왜 좋은지'라는 내용도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오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오해가 되고, 모두가 다 오해가 돼버리고 완전한 불신앙이 돼버리고 못된 물고기가 돼서 그물 바깥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구원 바깥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것과 옛것, 새것은 이 지구 위에 붙여진 천국을 말

합니다.
새것을 알고서야 지금 내가 돈이 안 벌리는 이 형편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안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가족 간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내 것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옛것에 대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것인 천국이 익혀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먼저 마음이 이 옛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접수돼버리면 새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새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옛 차원에 속하는 세상일에 마음이 익혀버리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버리고, '오 이것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천국은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로 습성상 이 옛것을 쉽게 마음이 익히고 알고 하는 이 차원이 죽지 않으면 새것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미 지금 상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깨닫게 돼버리고 알게 돼버리고 습득하게 돼버리면 절대로 천국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오해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오해가 있죠, 세상 밖에서는 오해가 없어요.
모두 피상적인 얘기이지, 다.

마음이 이 세상을 먼저 온고(溫故)해버리면 안돼요.
주님의 십자가로 무조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죽어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익혀야 되고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알고 나서 옛 차원에 속하는 이 지구 위에서의 일을 들여다보면 '아~~~, 이 일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병이 났었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혈연상의 가족이라도 혈연이라는 것은 옛것에 속하는 거예요.
옛것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갖고 왔을 때 몸의 습성이 옛것에 배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 옛사람의 차원, 옛것의 차원, 육체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일을 먼저 마음이 깨닫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젖어버리면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 이 새것을 먼저 온전히 익히고 깨달은 자라야만 옛 차원, 육체의 차원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올바른 의미도 알 수 있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곧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가 합니까?
새것인 천국을 아는 자라야 옛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옛것에 매여 있음을 알고 육체로 접하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천국으로 구원시킬 수 있지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올바로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서기관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인 새로운 이 세계를 익히 알아서 옛 차원에 속한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내게 닥치는 이 형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며 행복에 겨워 사는 천국의 서기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온신이지고(溫新而知故) 하며 천국의 서기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우리가 옛것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죽게 하시고, 오직 새것인 천국을 향해서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것인 천국을 알고 옛것인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